

박태환 金... 한국 수영 불멸의 금자탑



광주체고 출신 주현정 여자양궁 단체 '금' '한판승의 사나이' 유도 최민호 첫 금메달

관련기사 2·3·6·16·18·19면

수영의 희망 박태환(19·단국대)이 한국 스포츠 역사를 새로 썼다.

박태환은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 국가아쿠아틱센터에서 펼쳐진 2008 베이징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1초86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두드리며 1위로 골인했다. 박태환은 한국 수영이 올림픽에 도전한 지 44년 만에 나온 첫 메달을 금빛으로 장식했다.

박태환에 이어 장린(중국)이 3분42초44를 기록하며 2위로 골인했고, 3분42초78의 라스 젠슨(미국)이 동메달을 가져갔다.

또 이날 태극 남자들의 금빛 화살이 24년째 과녁을 벗어나지 않았다. 광주체고 출신 주현정(26·현대모비스)과 윤옥희(23·예천군청), 박성현(25·전북도청)이 출전한 한국 대표팀은 10일 베이징 올림픽리권 양궁장에서 열린 2008 베이징올림픽 단체전 결승전에서 중국을 224-215(240점 만점)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한국 양궁은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6차례 열린 올림픽에서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한차례도 놓치지 않고 6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이제 앞서 대회 첫날인 지난 9일 최민호(28·한국마사회)가 유도에서 다섯 경기 내리 호쾌한 한판승을 거두며 첫 금메달을 차지해 한국은 금메달 10개 이상을 획득해 2회 연속 10위권 유지한다는 목표를 향해 상쾌하게 스타트했다.

최민호는 지난 9일 베이징과학기술타 체육관에서 열린 남자 60kg급 결승에서 올해 유럽선수권대회 챔피언 루드비히 파이셔(오스트리아)를 경기 시작 2분14초만에 다리잡아메치기 한판으로 물리치고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또 한국 역도의 기대주 윤진희(22·한국체대)는 10일 오후 베이징 항공항천대학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53kg급 경기에서 인상 94kg, 용상 119kg을 들어 올려 함께 213kg으로 2위를 차지해 한국 올림픽 여자 역도 사상 두 번째 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사격의 간판 진종오(29·KT)는 지난 9일 베이징사격관에서 열린 대회 첫날 남자 10m 공기권총 본선에서 584점(만점 600점)을 쏘아 2위로 결선에 오른 뒤 결선서 100.5점을 보태며 함께 684.5점으로 중국 광웨이(688.2점)에 이어 2위에 올라 12일 주종목인 50m 권총 금메달 도전에 청

신호를 쏘았다.

그러나 앞서 열린 여자 10m공기소총에 출전한 국가대표 김찬미(19·전남여고출신·기업은행)와 김여울(22·화성시청)은 본선에서 각각 396점과 395점을 기록, 9위와 13위에 그쳐 8강이 겨루는 결선에 들지 못했다. 이종목 우승은 결선합계 올림픽 신기록인 503.5점을 명종시킴 체코의 카르나 에몬스에게 돌아갔다.

한국 여자 농구대표팀은 지난 9일 베이징 시내 올림픽 농구경기장에서 열린 여자농구 조별리그 A조 브라질과 1차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최유아(19점)와 변연하(19점)의 활약을 앞세워 68-62로 승리했다. 여자핸드볼 대표팀은 같은날 베이징 올림픽스포츠클러스터 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부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세계 최강 러시아를 맞아 막내 김은아(19·무안 백제고 출신·효병건설)가 7골을 터뜨리는 활약으로 후반 맹추격을 펼친 끝에 29-29, 극적인 무승부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한국 남자 핸드볼은 10일 베이징 올림픽스포츠클러스터 체육관에서 열린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전반에 잡은 주도권을 지키지 못하고 독일에 23-27로 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미 쇠고기 'O157' 사상 최대 리콜 한국엔 '능장 통보' 논란

미국산 쇠고기 분쇄육이 치사성 O157 대장균에 감염됐을 우려가 제기되면서 최근 리콜이 잇따라 실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검역당국이 한국 수출작업장 조치에 대한 통보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햄버거 포장 회

사는 버지니아주에서 70여명이 식중독에 걸린 뒤 69t(15만3천630파운드)의 쇠고기를 리콜 조치했다고 패서디나 스타-뉴스가 9일 보도했다. 리콜 조치된 고기는 S&S 푸즈(S&S Foods)사 제품으로 O157 대장균에 감염됐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버지니아주 보건당국은 쇠고기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했으며 최소한 26명의 워싱턴DC 지역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이 병원 신세를 졌다고 말했다. 앞서 네브래스카 비프사도 전날 밤 분쇄육 2천400t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 지 1개월 만에 540t을 추가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비프사는 현재 미국 내 한국 수출 승인작업장 30곳 가운데 하나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미 검역당국은 농식품부의 해명요구에 20일 넘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한국 수출작업장 조치에 대한 통보 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아직도 배고파요” ‘마린보이’ 박태환이 10일 오전 베이징 국가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확정지은 후 관중을 향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社 告

光州日報가 인재를 찾습니다

제 57기 수습기자 모집

권위와 전통의 광주일보가 수습기자를 공개 채용합니다. 호남 대표 정론지 광주일보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속에 명석한 판단력과 창의적 사고력으로 저널리스트의 길을 함께 걸어갈 젊은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지와 보람의 광주일보와 함께 미래를 개척하십시오.

1. 모집대상		
모집부문	인원	지역 및 대상
수습기자	○명	197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석사학위 소지자는 1976년 이후 출생자도 가능)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008년 8월말 졸업예정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자

2. 제출서류
- ▷ 입사지원서 1부
 - ▷ 소정 양식 다운로드 www.kwangju.co.kr 명함판 사진 부착
 -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1장 이내)
 -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대학원 졸업자는 학부성적증명서 포함)
 - ▷ 자격증 및 면허증·외국어 성적증명서 사본(소지자에 한함)

3.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방법	일정	
입사지원서 배부 및 접수	8월 6일~18일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8월 21일	
필기시험(국어/영어/상식/논문)	8월 24일 오전 9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8월 25일	
면접	8월 27일	
최종합격자 발표	8월 29일	

- ▷ 접수처 :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 광주일보사 총무부 (방문접수·우편접수는 18일 소인분까지 유효)
- ▷ 필기시험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4. 합격자 발표
- ▷ 각 전형별 본보 지면 및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

美 “北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

미국은 오는 11일로 행정 절차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조치를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이 9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에 따라 지난 6월 26일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을 의회에 공식 통보했으나 법률상 발표 시한인 45일이 지나도록 북한이 핵신고 검증체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11일로 예정된 테러지원국 해제를 연기하기로 했다 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해제조치는 공식 통보 후 45일 내에 의회의 반

대가 없으면 발효될 수 있지만, 이는 최소한의 시한일 뿐 북한이 강력한 핵신고 검증체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해제조치는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관리들은 밝혀왔다. /연합뉴스

유망학원 장학 56년 역사와 전통

공유지 내 교육명문대학과 함께

남부대학교

www.nabuniv.ac.kr

세종특별자치시 남원로 100-1

TEL: 031-700-1111

www.nabuniv.ac.kr

TEL: 031-700-1111